

# 주간건설 *Review*

487호 2017.5.26(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업계 동향

- ▶ 계룡건설,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 ▶ 현대건설,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 ▶ 한화건설, 임직원 단체 야구응원 '이글스데이' 개최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영향

■ 건설 제도 정책 동향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도입 추진
-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5.20.(토)~2017.5.26(금)>

제487호 2017.5.26(금)

<업계 동향>

## ◆ 계룡건설,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 계룡건설은 5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대전·충남 선수단을 격려하였음
- 5월22일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충청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청남도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지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금을 전달한데 이어 5월23일에는 이승찬 사장이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지역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금을 전달하였음
- 계룡건설은 매년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지역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하고 있음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충남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한 한승구 회장

## ◆ 현대건설,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 5월25일 현대건설은 서울 중구 계동 본사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직원들을 비롯해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식수행사를 개최하였음
- 이날 기념식에서 정수현 사장은 "현대건설이 70년 동안 명성과 경쟁력을 쌓으며 굳건히 건설명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의 땀방울 덕분"이라며 "창립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창립 70주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현대건설 임직원들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현대건설은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은 '열다 짓다 그리고 잇다'라는 주제의 '현대건설 70년사'도 발간하였음
- 현대건설 사사(社史)는 총 3권으로 구성됐으며 현대건설의 도전정신이 빛은 결과물과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회사 성장스토리 등이 담겨 있음
- 현대건설은 계동 사옥 1층 로비에 '현대건설 70년사'와 주요 역사(役事)에 대한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 한화건설, 임직원 단체 야구응원 '이글스데이' 개최

- 5월18일 한화건설은 한화이글스와 넥센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열린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임직원 단체응원 행사인 '이글스데이'를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최광호 대표이사 와 신입사원 멘토링 커플들을 비롯한 한화건설 임직원 1000여명이 참여해 한화이글스의 선전을 응원하였음



- 한화건설은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글스데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신입사원-선배사원 멘토링 커플들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음
- 한편, 한화건설은 '이글스데이'를 비롯한 다양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5시에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는 '가정의 날', 과장~상무보 진급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월제도' 등을 시행 중임

이글스데이 행사에 참여해 응원을 펼치고 있는 최광호 대표이사(사진 가운데)와 신입사원 그리고 선배사원들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5.20.(토)~2017.5.26(금)>

제487호 2017.5.26(금)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영향

-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사태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문도 사업중단 또는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 □ 현황

- 5월2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울진에 지을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시공 설계 용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3·4호기는 이달 착공, 3호기는 오는 2022년, 4호기는 2023년 각각 준공 예정이며, 한수원은 지난해 3월 한전기술과 4672억원을 주고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음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건설 중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장을 선회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실무 협의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7~8월경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약 28%로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의 계약을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총 1조5242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건설이 중단 되면 이 공사에 투입된 관련기업들의 막대한 손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이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수원은 설명

##### □ 원전건설 중단의 영향

-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면 당장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
- 기자재·종합설계·시공사의 하도급사와 협력사 등 약 510개 업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의 손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지자체(울주군)의 가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어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건설 중단시 원전건설에 따른 정부의 지역지원사업(법정지원금) 1조원,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 주민들의 집단이주 약속 철회에 따른 보상비 2700억원, 지방세수

역시 2조2000억원 감소 등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플랜트 공사의 경우 석유화학 공장과 함께 사업 규모가 큰 원전이나 발전소 건설의 비중이 커 앞으로 사업이 축소되면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건설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전망
-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건설에 참여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정률 약 28% 수준으로 설계가 79%, 기자재 구매가 53% 이뤄졌고 실제 시공 공정률은 9%에 그쳐 공사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사업중단시 이들 업체의 매출과 수익 손실은 물론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인력 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
- 통상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중단이 아닌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공사의 기성금을 정산받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공사가 받는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공공공사 발주 물량마저 감소해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주택 등 건축공사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국내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기술경쟁력 약화는 물론 발전사업을 추진해온 건설사들의 원전 전문인력들의 관리 및 재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내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 예상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5.20.(토)~2017.5.26(금)>

제487호 2017.5.26(금)

##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도입 추진

- 금융위원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DSR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올해 안에 DSR 표준모델을 만들어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
- 이는 당초 2019년 전면 도입기로 한 것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안착되면 기존 대출심사 지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사실상 폐지수준을 밟을 전망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 \*\* DTI(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 이자만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 다만,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DSR 표준모델을 참고하되, 자사의 대출고객 특성을 감안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권 일부에서는 DSR에도 강제비율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가계부채 3단계 7대 해법’ 공약집에서 DTI 정상화와 여신 관리지표로 DSR 활용을 제시했지만 여러 단계의 수정을 거쳐 나온 최종 공약집에선 ‘DTI 정상화’를 삭제하고, ‘DTI 대신 DSR 활용’을 넣어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함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

#### □ 3대 근본대책

- (1)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전환
- (2)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 (3)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금융정책 운영

#### □ 7대 해법

- (1)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 DTI 대신 여신관리 지표로 DSR 활용
- (2)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3)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 (4) 소액, 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 (5)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7)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도시재생기획단’이 국토부 국토 도시실 내에 설치될 예정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재생을 진두지휘할 도시재생사업 실무 전담기구
  - \* 도시재생 뉴딜사업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 재생하겠다고 공약함
- ‘도시재생기획단’은 국토부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도시재생과, 지역정책과, 도시경제과, 하천계획과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범 정부기구
- 기획단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곳, 오래된 전통시장 또는 옛 공공청사·역사·공장부지 등 도시 안에 방치된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430여 곳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소 재검토할 예정
- 그러나, 매년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자금 3조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으며, 결국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
- 한편, 새정부는 도시재생을 진두지휘할 청와대 조직체계(사회수석·주택도시비서관 신설)를 일찌감치 확정할 바 있음